

# 함평나비대축제 성공기원 '나비날리기 행사' 성황리 마무리

### 4월 24일~5월 5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나비대축제 개막

전남 함평군의 대표 봄축제인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의 개막을 1개월여 앞두고 행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호랑나비가 함평 상공을 날아올랐다.

함평군은 20일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성공 기원 나비날리기 행사가 이날 오후 함평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기관사회단체장과 함평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를 기념하여 함평군 대표 나비인 호랑나비 28마리를 비롯한 직접 길러낸 여러 종류의 나비를 날려 보냈다.

한편,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는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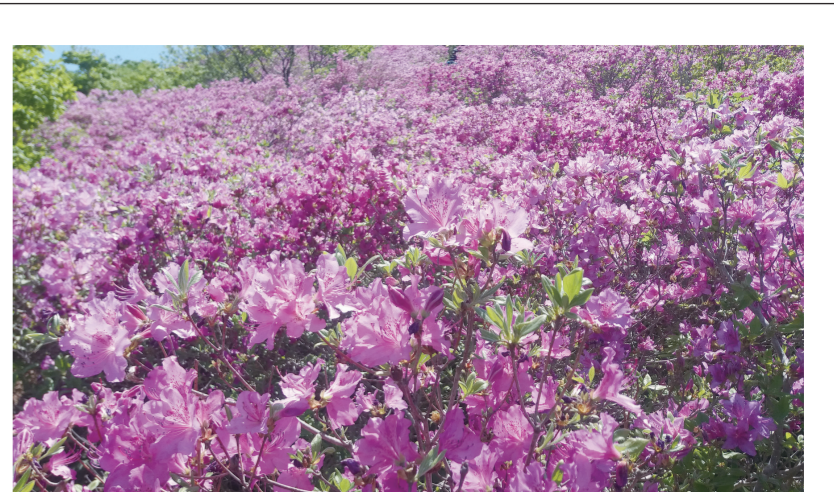
특히 올해 축제에선 '나비 날리기', '나비 먹이주기' 등 기존 인기 프로그램을 확대한 '나비와 함께 알뜰' 체험과 어린이 관광객에게 생애 놀이 교육을 제공하는 '나비파크'가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올해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봄 느낌이 물씬 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올해 나비대축제는



600여 공직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축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막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 전국 최대 철쭉군락지 일림산 탐방 환경 개선

### 5월 2일부터 4일까지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준비 박차

보성군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일림산 철쭉군락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봄철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탐방로 정비와 생육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는 '제22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를 앞두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급경사 및 계단 구간에 기존 목재 계단을 철거하고, 이를 재활용해 안전한 경사형 우회 탐방로를 신설함으로써 이용객의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정상 접근 구간 역시 경사 완화형 구조로 보수해 고령자와 가족 단위 탐방객이 더욱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약 300ha에 달하는 일림산 철쭉군락지 전반에 대해 생육 장애 요인 제거 작업을 병행해 철쭉 개화 품질 향상과 군락지 보전을 위한 환경 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올해 '일림산 철쭉문화행사'는 일림산철쭉문화행사추진위원회와 보성군

이 공동 주최·주관하며, 행사기간 응추계곡 상단주차장 일원에서는 ▲차나무 화분 만들기, ▲편백나무 잘라가기 체험, ▲어린이 목공 놀이, ▲산림문화 전시회, ▲로컬푸드 판매, ▲페이스트페인팅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5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일림산 정상에서는 ▲사물놀이 공연, ▲철쭉축제, ▲도시락 나눔 행사 등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탐방로 개선과 환경정비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일림산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보성군 누리집을 통해 주 2-3회 철쭉 개화 현황을 사진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방문 전 참고하시고, 입산 시 화기물 소지는 반드시 금지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 응치면에 있는 '일림산'(정상 688m)은 골치재에서 626고지에 이르는 능선을 따라 전국 최대 규모의 산철쭉 군락이 형성돼 있으며, 매년 봄 연분홍빛 철쭉이 장관을 이루 전국 수많은 상춘객이 찾는 대표적인 봄철 명소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 화순군, 제13회 다문화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다문화 정책 성과 인정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3월 19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회 다문화정책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다문화정책대상은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고 정책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세계일보 사장상 등 6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화순군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다문화가정 맞춤형 지원사업 ▲지

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가족센터 중심 통합 서비스 운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재 화순군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여성 5명을 인가제 공무원을 채용해 다문화 가족의 생활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복지정보 제공, 일자리 연계, 병원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국에서 온 계절근로자를 위한 ▲통역 지원 ▲애로사항 상담 ▲금융기관 이용 동행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기업과 화순 농특산물



수출 업무협약 ▲중국 소흥시 가교구와 난 산업 업무협약 ▲화순 난 명품박람회 등에서도 통·번역 업무 수행을 통해 지역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화순/김종환 기자

## 강진군, '농촌왕진버스' 올해도 의료 사각지대 달린다

### 의료·재활·검안 서비스 제공으로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

강진군이 지난 19일 도암문화회관에서 도암·신전면 농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24년 처음 시행된 왕진 버스 사업은 의료 기반이 부족한 농촌 지역 농업인과 60세 이상 주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진군은 더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9일 강진군 도암면과 신전면을 시작으로 대상 지역을 지난 해 3개 면에서 올해 강진군 관내 전체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횡수도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도암농협과 협력해 왕진 버스 사업을 추진하며 3개 협력 병원, 23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원광대 장흥통합병원

의료진이 제공하는 기초 진료와 수액 맞춤 서비스, 연세대 스포츠재활연구소 전문 인력이 진행하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 및 재활 상담, 맑은 안경원이 제공하는 검안 서비스와 돋보기 지원이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 300명 이상이 의료 혜택을 받아왔다.

윤영문 농정과장은 "농촌 왕진 버스는 단순한 의료지원을 넘어 농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물론 농촌 고령화 문제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현행 운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추진되는 왕진 버스 사업의 진료 과목과 운영 방식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서 기자

## 완도군, 4월 10일까지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치유 관광 활성화, 탄소 중립 방안 등 5개 분야 아이디어 공모

완도군이 군민과 함께 '더 나은 완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년 상반기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행정 주도의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정책의 수요자인 군민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접목해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군 미래 전략사업인 ▲치유 관광 활성화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블루카본) ▲스마트한 섬 생활 편의 서비스 ▲청년 정착 등 공모 분야를 설정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모집한다.

완도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와 군 누리집,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으로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실무 부서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중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시상금(최대 70만원)이 지급되며, 군정에 반영하여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행정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신청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누리집(고시 공고 35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장성군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4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장성군이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산림직불금은 산림청이 임업 종사자의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매년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이내에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종사 중인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임산물 생산업(0.1ha 이상 산지 경영) △연간 판매 금액 120만 원 이상 △육림업(3ha 이상 산지 경영) △신청 연도 직

전 1년간 60일 이상 종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부터 산림청이 휴대전화 간편 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접근성이 좋아졌다. 방문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직불금 지급 시기는 오는 12월 경이다. 지급 액수,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황해연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강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행복하고 싶은 순간마다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나보다 원대 사물을 만드는데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작은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기어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 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색감처럼** **만드는 기쁨**  
및 장이나 될까. **잠시** **우울하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아니**  
평범적인 **필연 강하다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가득한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아니다**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가**  
좋은 거라면 **그**  
은 언제나 **우연**  
아닌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